

예술처럼 향유하는 디자인의 미래

마라세르베토가 제안한 '소통의 공간'

전통과 첨단 기술이 만나 감각의 법계도를 디자인한다.

4월 밀라노를 시작해 베를린, 광주를 거쳐 온 2008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12월 3~7일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렸다. 유쾌한 집착을 디자인으로 표현해온 일본 디자이너 하라 켄야의 '햅틱(HAPTIC)' 붓을 비롯해 일상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현대의 디자인과 디자이너들이 소통하는 디자인의 미래에 주목한 행사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4일 열린 강연을 통해 '소통의 공간(Branding Space)'을 논의한 건축가 마라 세르베토(Mara Seravetto, 밀리오레 세르베토 건축사무소)는 "모든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고 전체 지도를 그려야 한다. 그 안에서 역동적인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고

심하라. 공간 혹은 제품이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 브랜드 맥스마라(MAXMARA), 호간(Hogan), 렉서스(LEXUS), 뉴욕타임즈 등 수많은 브랜드와 행사를 디자인 해온 그는 올해 토리노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도시 환경 설치물 디자인으로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황금 콤파스'를 수상했다.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가 세계 디자인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밝히며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단청빨강색'이 지닌 브랜드 파워에 대해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이용자의 시점으로 연구하고 디자인(light and motion)해야 한다. 시야 안에서 주목 가능한 디자인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각인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연숙 기자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가운데 하이라이트

"마음이 따뜻한 인터넷방송에 귀의합니다"

인터넷 명상센터 'www.namuart.net' 대표 하훈

"고요한 명상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는 일순간도 고요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깊은 명상으로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 시대와 판이하게 다르죠. 진짜 명상은 주변 상황을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포섭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일상의 선(禪)이 인터넷에 접속한다.故 백남준 선생(1932-2006)이 작품 'TV붓다'(1974)에서 자아의 화두를 투영한 영상을 통해 세상을 반조했다면 현대인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인드라망의 무진연기를 깨닫는다.

인터넷 명상 센터 나무아트넷(www.namuart.net)을 오픈한 하훈 대표(48, 시인, 국제포교사)는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행복 포교사로 앞장서고 싶다"며 "현대에 적합한 명상수행법으로 속도에 길들여진 세대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인터넷 참선 도량을 열었다. '나무(namu)'는 불교의 귀의(namas, 南無)를 의미하는 것으로 삶을 예술로 구현하고자 한 의도를 담고 있다.

나무아트에 접속하면 총 100여 개의 가르침과 선인들의 깨우침이 다양한 장르와 기법으로 펼쳐진다. 색(色)을 공(空)의 예술로 표현해 온 전각가 고암 정병래 선생의 작품과 어우러진 '느티나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아름나무', 어릴적 향수를 일깨우는 동요방송 '꿈나무', 음악방송 '전단향나무' 등 메뉴들이 평안의 보금자리를 감성 애니메이션으로 선출한다.



인터넷 명상 포교사 하훈.

스스로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덕향(德香) 거사 하훈. 그의 범명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 향기로운 지혜의 별을 심고 그 열매를 나누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힘차다. 천천히 살며 마음 돌아보기를 지향하는 나무아트는 12월 27일 충북 진천에서 미래촌(촌장 김만수) 주최로 '새김아트와 디지털'을 강연하며 오프라인 전시는 서울 인사동 새김아트갤러리에서 12월 31일까지 연다. (02)732-5515

가연숙 기자

2009년 2월 22일까지 LG아트센터

여래장으로 본



인간의 완전성을 찾고자 신에게 도전해 삶을 재정의 하고자 한 과학자의 이야기.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틸러로 인정받으며 한국 뮤지컬 사상 전석 매진 기록 수립의 사명을 보이고 있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11월 14일 개막한 이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9년 2월 22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2004년 초연해 12월 16일 300회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종교적 반란의 시대 12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왕조를 배경으로 인간의 본성과 완전성을 찾아내고자 한 지킬 박사의 행로는 선과 악의 구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와 그럴 수 없는 행위로 극명히 대립된다. 진실을 찾아 몸부림치는 혁명가 지킬 박사는 억압된 도덕적 책임과 죄책감이라는 내면의 가장 어두운 면을 걸림 없는 하이드를 통해 표출하며 가면을 쓰고 장점과 감정을 드러내려 하는 인간의 허상을 해체한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철학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모든 고뇌와 죽음을 초극한 이상적 초인의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뮤지컬 원작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 또한 당시 시

류를 따라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통해 실존을 탐미했다. 그것이 세기를 넘어 현대의 모순과 교감하며 여래장(如來藏)의 세계를 무대 위에 선보인다.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마음의 이중 구조를 논했다. '일심(一心)이 중생심(衆生心)이며 이 중생심에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 있다'고 했다. 중생심의 진여상은 그대로 대승의 체(體)를, 심생멸은 현실의 생멸 인연상을 나타낸다. 심진여의 세계는 염법(染法)의 허망한 마음의 생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진실의 세계다.

지킬 박사는 심생멸문의 세계에서 범부의 사유 능력으로 진여선(眞如善)의 본성을 분리해 행동 제약이 가능한 제법의 실상으로 드러내려 한다.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 불선(不善)을 제압하는 본성의 선을 찾아 전체를 포섭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 의도다. 지성으로 다룰 수 있는 이성적 선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감정적 악을 분리하고자 분투하며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연인 엠마와 창부 루시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 자아 지킬과 하이드. 이 이야기의 비극은 지킬이 마지막까지 진아(眞我)의 불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든 번뇌법은 무상하다. 경계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허(虛)이고, 체가 산란하기 때문에 망(妄)이라 했다. 생멸과 함께하는 진여 즉 여래장 사상을 그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무명(無明)에 파도치는 인간을 연민한다. 마음의 진여를 심생멸문 속에서 구하고자 한 지킬 박사는 염법의 존재 하이드와 충돌하며 분별 망상에 휩싸이고 진속의 경계에 휘말린다. 통제 불가능한 지킬과 하이드의 불가능한 공존은 결국 물거품과 같다.

망령된 경계로 몰아가는 물든 마음은 결국 진여로 돌아가고자 한 지킬의 의지적 환멸 연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본각(本覺)의 혼탁이 망령된 무명의 인연으로 인해 분노와 집착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지킬은 결국 심원(心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웅장한 음악과 세련된 의상 및 배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킬의 아리아 '지금(Now is the moment)'과 엠마의 '한때는 꿈에(Once Upon a Dream)'뿐만 아니라 2007년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지킬 역 유정환과 2008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엠마 역 김소현이 선사하는 무대는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1588-5212)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나산 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NS-76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2.5kw, 약: 1.2kw
· 회전기능: 좌우 90도
· 높이조절: 상하, 135cm ~ 100cm
· 중량: 약 8.5kg
· 크기: 반사경(60cm) 높이: 135cm

● 산업용 (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2.5kw X 8시간 = 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198,000원 (배송비 4000원 소외지역)



NS-78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1.8kw, 약: 900W
· 회전기능: 좌우 90도
· 높이조절: 상하, 135cm ~ 100cm
· 중량: 약 6.5kg
· 크기: 반사경(54cm) 높이: 135cm

● 상가용 (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1.8kw X 8시간 = 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178,000원 (배송비 4000원 소외지역)



NS-7000



NS-7200

◀ NS-7000 (적용면적: 10평형)
열량 / 2.9Kw · 사이즈 / 355 X 660 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2.9kw X 8 = 1,575원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나산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 X 1.8kw X 8 = 978원

나산전기 난방이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 / 중국산과 비교불허!

- 북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레데워 실내가습효과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나산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주 사용처: 사무실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 / 주점 / 펜션)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强者! 나산전기히터!